

#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로!



강 춘 성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60년만의 붉은 돼지해인 丁亥年 새해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새 해에는 우리 농민들 특히 우리 회원들에게 밝은 희망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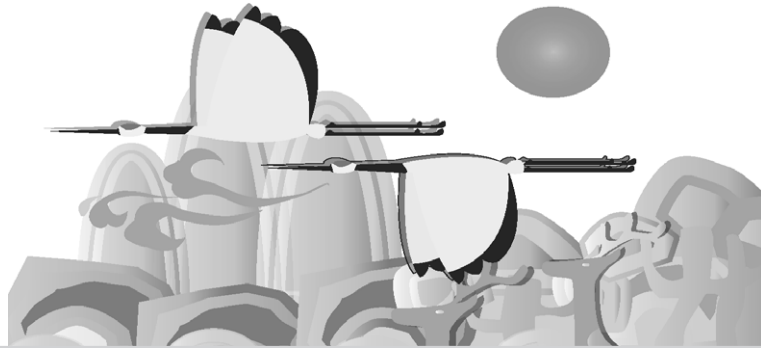
우리 협회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들은 3대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선도농가임을 自認하면서 협회를 아끼고 참여하며 발전시켜 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농업·농민은 우리 협회의 설립 이념인 <우리의 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선도 농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이 『살고 싶은 농촌』을 가꾸는데 필수 요건입니다. 마을단위의 선도농가와 지역단위의 참된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농촌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여망과 의지를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속에 담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농업도 농민도 존립이 가능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살기 좋고, 도시사람들이 살고 싶은 농촌을 가꾸는 것입니다.

2007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 농촌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점차 줄어들던 가던 마을 주민수가 최근 서서히 늘어나는 지역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희망으로 새해에도 더욱 『살기 좋은 농촌가꾸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 협회가 금년 한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풀어야 할 중요 과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정관과 제 규정을 개정하고 잠자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농업진흥관 건물도 향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바람과 의견을 모으고 청취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지금 25년이 지난 농업기술진흥관 건물은

낡고 헐어서 조속히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금년 연말에는 2008년도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합니다. 누가 선출되는냐?에 따라 협회 위상과 진로 그리고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써 마지막 봉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리협회의 미래를 책임질 새 집행부가 덕망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협회의 3대 혁명을 재조명하여 살맛나는 농촌가꾸기와 살고 싶은 농촌가꾸기 실천을 통해 우리 협회가 한 단계 도약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정해년이 되길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